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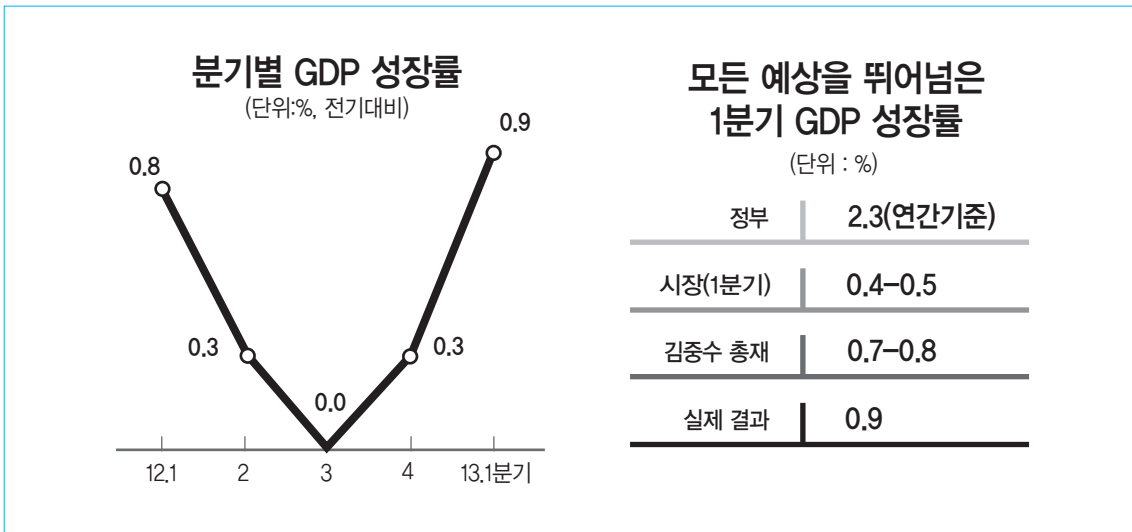
터널의 끝에서 U턴?

김현희 원켄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

지난 1·4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0.9%로 나타났다. 시장 예상치(0.4~0.5%)를 웃돌았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1일 예상했던 0.8%보다도 높았다. 지난해 4·4분기 성장률(0.3%)을 기준으로 볼 때 경기가 가파르게 개선된 모습이다. 전분기 성장률이 워낙 낮은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V자형 회복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우리 건설 업계는 어떤가? 어둠의 터널 끝에서 U턴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2013년 4월 ~ 5월 자재 동향)

자재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S BASE 현재 전월 대비 인하 상태(4월 3주 기준) - 동 LME 킬로그램 당 80~100원 인하 상태(4월 3주 기준) - 형강류 및 철스크랩 단가 인하 전망
강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관류 단가는 4월 초순 일부 인상되었으나 부진한 수요와 열연가격의 하락으로 인상 전 수준으로 복귀 예상 - 국제 열연가격, 철스크랩, 철광석등 원자재 단가의 하향세로 형강류의 유통가격도 인하 전망
동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동LME 시세는 325원 인하된 8,706원으로 확정 - 국제 동LME 시세는 톤당 7,547~7,067달러로 거래 중 주요 국가의 경기 회복세 둔화와 달러화 약세 등으로 소폭 인하되어 거래중이지만 세계 경제 반등시 동반 상승 가능성 있음
STS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STS관 BASE의 유통 가격은 50원 인하 확정 - 국제 니켈 시세는 톤당 15,350~16,390달러로 거래되고 있으며 전월대비 인하 상태 - 3월의 하향세가 4월로 이어진 상황. 국제 시세는 동관 시세와 유사함. 제조사는 현재 시세로 동결을 원하나 국내 건설 수요 부진으로 실 유통 단가는 인하될 움직임이 포착됨
구매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경제 상황 및 건설 경기의 전반적 침체 가운데 돌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중장기 전략을 세우기가 여의치 않음 - 2분기를 시작하며 원자재 시세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반영되지 않은 단가 인상 요인과 기타 변수가 상존하여 국내 설비 자재 단가에 연동되기는 쉽지 않음 - 따라서 현재는 현장별 특화 제품의 별도 견적 또는 단기 고정 단가제 등의 구매 방법이 유효해 보임 - 건설 시장 둔화로 특별 가격을 제시하는 다크호스가 종종 등장하므로 수시로 신규 자재사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자료 출처 : 한국은행, 서울경제신문)

그래프를 보면 지난해 1분기 이후 나라를 향해 끝 모르고 추락하던 GDP성장률이 3분기에 바닥을 찍었고 올 1분기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수치를 기록했다. 물론 보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재정부의 해석처럼 1·4분기 성장률만으로 경기회복을 예단하기엔 이르다.

지난해 4·4분기 경기가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1·4분기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통계적 착시현상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2분기 이후 성장률까지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힘들지만,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그럼 건설산업은 어떨까! 건설업종은 1분기 개별 기업의 실적 발표 이후 거의 패닉 상태로까지 치달고 있는 느낌이다. 그동안 부진한 내수를 만회하기 위하여 건설사들은 해외로 방향을 틀었고 일정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건설 산업은 해외에서조차도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

우리 설비건설산업은 해외 현장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종합 건설사의 위기, 특히 현금 유동성의 문제는 바로 우리 설비건설업계의 기성과 맞물려 있기에 결코 남의 문제일 수만은 없다. 이제 어둠의 터널 끝에서 희미하게 빛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다시 유탄하여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김현회(金炫會) 총괄본부장

- 現 원켄네트웍스 사업본부장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업
- 삼성그룹 디자인연구소 및 UCLA Extension 수료(멀티미디어 부문)

- 삼성화재 홍보, 시장개발, 인터넷 사업 담당(사보, 사장단 연설문, 방송PD, 보도자료, 인터넷 기획, 전국 애니카랜드망 구축 등 담당)